

출판희제

'무비스님 현토과목 화엄경' 나와

도서출판 민족사(대표 윤창화)는 최근 방대한 <화엄경> 원문에 토를 달고 단락을 나눈 <무비스님 현토과목(熊比科目) 화엄경 원문>(전 4권)을 출간했다.



<현토과목 화엄경>은 전통강원본인 80권본(화엄경)과 '보현행원품'을 합하여 원문에 한글로 토를 달고 세밀하게 과목(科目: 중간제목, 단락구분)을 붙여 내용과 뜻을 용이하게 한 책. 이번 <화엄경> 현토과목 작업은 전통강원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용으로 꾸며졌다. 이 책의 저자인 무비스님(조계종 승가대학원장)은 80권본(화엄경)을 한글로 번역 출간한 바 있다. 500쪽 한정판, 값 13만원.

황면스님 '생명, 그 영원한 신비' 출간

'불교국가 의약품 보내기 운동본부' 실행대표인 황면스님(前 조계종 기획실 기획국장)이 종교 의학 법학에서 규명한 생명의 본질을 다룬 책 <생명, 그 영원한 신비>(대흥기획)를 펴냈다.



종교 철학 과학의 목적을 인간 생명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보는 황면스님은 불교의 참신이 생명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참 생명의 발견은 곧 깨달음이다. 참 생명의 본질과 이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은 분이다"는 생각에서다.

정광수씨 평론집 '禪문학과 벽암록'

시인 정광수씨(해동문학주간)가 두번째 문학평론집 <禪문학과 벽암록(禪學과 碧巖錄)>(한누리미디어)를 출간했다. 첫번째 평론집 <禪의 논리와 초월적 상징>(93) 이후 쓴 평론을 묶어 낸 <선문학과 벽암록>은 구립 26일 한국문인협회(회장 황명) 동포(東浦)문학상 본상을 수상한 평론집.



제1부는 일련의 불교문화관련 논문인 '선문학과 벽암록의 가치' '자타카 문화' '불교문화와 대중경전의 세계' '한국불교시 계보' 등 11편을, 제2부는 유망 시인들의 시평(詩評)을 실었다. 제3부는 저자의 시세계를, 제4부는 저자의 문학적 철학을 다루었다.

새로 나온 책...

▲피단을 향한 지혜의 길(해공스님 지음)=지장도량으로 유명한 영천 보현사 주지 해공스님의 법문집. 다양한 사회현상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불교 입문자나 현실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솔바람 7천원)
▲영원으로 돌아가는 길(태광스님 지음)=대비주(大毘紐) 반야심경 참회경문 등 중요한 만트라와 의미와 결실, 법신에 대한 제반 의미 등을 해설했다. 또한 현신의 밀송(密頌: 비밀스럽게 전한 진리의 계승), 마하무드라의 밀송, 사라하의 밀송, 신보왕삼매론(新寶王三昧論) 등을 소개해 수행의 방편을 삼도록 했다. (한글문화사 7천원)
▲당시(이원섭 역해)=지난 65년 새로운 우리말 서정시로 역해한 한시집(唐詩)의 개정증보판. 31년만에 나온 이번 개정증보판은 이백의 장시 '축도난(蜀道難)' 등 4편, 두보의 '한별(恨別)' 등 9수를 새로 추가했다. (현암사 1만2천원)



▲다도철학(정영선 지음)="우리의 다도(茶道)는 구도의 방법이자 그 자체였다. 차 한잔 끓여 마시는 일이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하며, 자연과 인간의 진리를 터득하게 하는 일이었다." 한국다문화연구소 정영선소장이 다도의 철학적 기반을 유·불·선·민간신앙별로 정리했다. (너러바위 7천8백원)
▲근대 수묵 채색화 감상법(최열 지음)=19세기 중엽이후 수묵 채색화와 그 시대의 화가들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했다. 내용과 형식에서 계승과 혁신을 꾀한 대표적 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법고창신(法古創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본다. (대원사 3천5백원)

구미 禪문학 새 장르 정착

김현창교수 '세계문학속의 동양사상' 펴내

"최근 20여년 간은 구미 禪문학의 활발한 창조기였다. '禪과 비트세대', '선과 히피문화', '선과 정신분석학', '미국 전위음악과 선', '무정형(無定型)미술과 선', '선과 미국 철학사상', '칼 융과 선' 등 무수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문학장르를 이룩하게 된 禪이 구미 문명권에 의해 인정, 수락되기까지 사상적 배경과 과정 등을 규명하고 '구미 선문학'의 본질을 본격적으로 분석 연구한 책이 나와 화제다. 서울대 스페인·중남미연구소장 김현창교수(62·서어서문학)가 쓴 문학평론집 <세계문학 속의 동양사상>(서울대출판부)이 그것이다. '문학과 道'를 부제로 단 이 책에서 김교수는 "선불교는 1900년경에 미국에 전해져 태평양전쟁(1940) 이후 급격히 성장해 오늘날 구미 문화의 중심부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고 파악한다. 또 "선불교가 오만한 서구문명의 우월감을 극복하는데 기여했다"고도 평가한다. 특히 공안(公案)의 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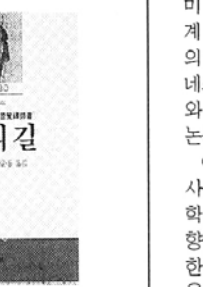
공안·선문답·좌선등 2차대전 후 급속 확산 정신분석학·전위음악·무정형미술 등에 영향

에 의해 처음 발생했지만, 서구 여러나라 중 선불교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관심을 기울인 나라는 독일이었음을 지적한다. 불교사상을 처음으로 체계화하여 서구 철학계에 소개한 쇼펜하우어, 약 40쪽에 달하는 <선구집(禪句集)>을 남겨 놓은 헤르만 헤세, 최근 禪사상과 많은 비교연구가 되고 있는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 서구 선문학의 거장이 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등이 모두 게르만계였다는 설명이다.

유명한 구미 '禪' 애호가와 전문가가 이 밖에도 무수히 많다. '서구 선문학' 출생에서 참선한 경력이 있는 블리드는 禪의 구미 소개에 생력을 이루고 있다. 그의 독일계 미국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 아르헨티나의 보르헤스와 코르타사르, 스페인의 헤메네스 등 수많은 작가와 학자들이 동양에 와 실제로 참선을 경험하고 많은 저서와 논문을 내놓았다.

화두참구 요체담긴 서간문 '書狀' 국역

참선의 길 정순용 옮김
정순용씨(동국대영원역역위원)가 번역한 <참선의 길>은 <대해보각산사서(大解普覺禪師書)>를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일명 <서장(書狀)>으로 불리는 이 선어록은 화두참구의 요체를 간명하게 설명한 서간문으로 유명하다. 이 책의 저자인 대해(大慧: 1089~1163) 선사는 <서장>에서 남송(南宋)대의 명사인 40여 명의 제자 수행자들(2명은 스님)과의 서신왕래를 통해 간화선(看話禪)을 경험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시끄러운 곳에서도 끊임없이 화두를 탐구하도록 하는 동정일여(動靜一如)의 공부는 바쁜 현대의 수행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제중의 10대 법승이며 <벽암록>을 쓴 원오선사의 제자인 대해선사는 좌선의 고요함에만 빠져있던 묵조선(默然禪)을 배격하고 공안(公案)을 참구하여 깨달음에 들어가는 간화선을 정착시킨 고승이다. (고려원 7천5백원)



김재경 기자

명사추천

법화경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었다. 아버님이 성결교회의 장로였을 정도로 온 집안이 교회일을 집안 일처럼 행기곤 했다. 하지만 나는 어느 때부터인지 돌연변이처럼 불교를 공부하게 되었다.

부처님과 인연은 대학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가 절로 피신을 가게 되면서 시작됐다. 자연속에 묻혀 한동안을 지내다 보니 복잡한 삶을 되돌아 보고 나 자신의 존재를 반추해 보게 된 것이다. 자신에 대한 궁금증과 '왜 사느냐'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자 이곳 저곳의 큰스님들을 친견하고 가르침을 청하게 되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대불련 활동도 하게 되고 나름대로 수행과 경전 공부로 통해 부처님 법을 배우게 된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터는 참선보다는 경전 독송을 주로 하게 되었다. 바쁜 틈을 내어 경전을 독송하면 따로 참선을 할 것도 없이 무아지경(無我之境)에 빠져 잠시나마 평안함을 얻고 생활에 활력도 얻게 된다. 오랫동안 독송한 경은 <금강경>이었지만 몇년전부터는 <법화경>을 항상 수지독송(受持讀誦)하고 있다. <금강경>도 좋은 경이지만, <법화경>이 더욱 뛰어난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성준 (국민회의 국회의원)

인격완성 이상향의 길 제시 누구나 부처 될수 있음 천명

經)으로 불리는 <법화경>은 <화엄경>과 함께 한국불교사상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경전으로 알고 있다. 예로부터 모든 경전의 왕으로 인정받았고, 초기 대승경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불경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천태·법화종의 소의경전이며, 현재 불교전문강원의 수의과(隨意科) 과목으로 채택되고 있는 줄 안다.

모두 7권 28품으로 구성된 이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으로 평가되고 전승된 것은 화삼귀일(會三歸一)사상이란 한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여 성문(聲聞) 연각(緣覺) 보살(菩薩)들에게 각각 맞게끔 삼승(三乘)의 법을 설했지만 그것이 모두 부처의 지견을 열어보이고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시방불토(十方佛土)에는 오직 일불승(一佛乘)의 법만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부처가 되는 길 이 누구에게나 열려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법화경>은 전체가 귀중한 교훈으로 이뤄져 있어 각 품의 우열을 논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제25품 <관세음보살보현품>이 관음신앙의 근거가 되어 특별히 존송을 받아왔으며, 따로 <관음품>으로 편찬되어 많이 독송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중국에서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으로 유명한 <법화경>은 삼국시대부터 널리 유통되었으며, 고려시대 이후 공덕경(功德經)으로 위상이 확립되어 필사(筆寫) 및 간행이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법화경>은 속세에 있으면서 현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우주의 진리에 순응하여 바르게 살며, 자기의 인격을 완성하면서 세상을 평화로운 이상향으로 만들어가는 길을 제시하는 보배로운 경이기에 불자들이 꼭 읽어보길 권한다.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Lists top 10 books including '생활속의 기도법', '불교입문', '도술전에서 만나다'.

Large advertisement for 'Prayer' (祈禱) book by Il-ta-ksun. Includes a portrait of Il-ta-ksun, a quote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d details about the book's content and availability.